

爭靜動重B音支下卦全



◆ 약용작물 시험장 방문

그동안 각 지부 산하에서 한약재 절단판매 행위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여 최근 보건사회부장관 질의 회신을 다음과 같이 기재 홍보하니 참조바랍니다. (이 자료는 1993년 4월2일 충북제천시 강대석씨가 보건 사회부에 질의한 절단판매 행위에 대한 회신입니다.)

한약재 절단판매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1. 귀하께서 '93. 4. 1자 우리부에 접수한 한약재 절단판매행위에 대한 질의회신입니다.
 2. 한약재는 사용목적에 따라 의약품과 식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약학적용도로 사용하고자 한약재를 가공하고자할 경우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거 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식품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약재를 가공할 경우에는 약사법상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이경우에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건사회부장관

▲ 약용작물 시험장방문

▲ 경기도 포천군 양동회 4 차 총회
지난 2월 27일(일)로
회 중앙본부 부서장(총
무부장, 기획실장, 공화
장장)들은 경기도 포천군
군 신설면 데둔1리에서 포천군
영동회(회장 이인기)
인기) 초청을 받아 자제회
총회에 참석을 한바있었
다.
이 자리엔 포천군청
유재원 특작계장을 비롯
하여 (株)경동 경기지점

서로
특히 경기도내
전략사업과 팔도 면류상
업 추진에 있어 생약부
문의 정부·보천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전락키로 하였다.
다.
영동회원들이 그동안
이 지역 생약 농가를 위하여 협조한 봉회 부서장을 3명과 포천군청장을
작게 차지해『감자파』전시회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생약협
회와 군청 또한 생약농
가들의 단합을 위한 농
놀이 경연大会를 푸진하였다.
살풀이로 보답하면서 이
날의 우애를 노획하기
진 바 있다.

▲ 전라북도
군농촌지도소
생약교육
 지난 2월 22일 전라
완도군에서 농촌지도소주관으로 생약재배농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 복희기회설정원장
장사로 참석하여 협력
생약 허황 및 시호, 당귀 등 재배법에 따른 전반

● 지역별 생약 교육 시
도 가평군이 인태소장원과 농촌지도소 협조하에 색약 농민 80여명이 모여 가운데 생약자배·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본회 경기도 김정배자부 장이 참석하여 생약자배 기술에 관한 강연을 강사하였다.

지부회의 김종근支部長은 지난 2월20일 전북 군산시 (송성섭소장)에도 금년 도 제1차 지부회의를 소집하고 기간동 이 지역 생약유통경보를 살피고 환하면서 복부와의 유대 강화 및 지원 대책을 협의하였다. 본부에서는 이종 이날 본부에서는 이종

본부지원관계 (교우강사 지원 및 노총 지도소 협조문제)

● 토양 검사 의뢰 협조 문제등 지부장은 전북 각군 사무소에 「FAX」질문장을 의뢰했음을 감수하면서도 생산현황을 서론 역량하여 판매 알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한

서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별 분사무소장을 해지하고 93년도 충주시 사업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을 하고 93년도 충주시 사업을 4호를 59톤 정도 계약재 배수대후 수출로 천5백만원중『삼도시

대한 정보를 살호 교환하면서 솟장 살호간의 친목을 더욱 돋우기 하였다.
이날 본부에선 날정학 공방장장 참석하여 우량 종자 개발 및 기계화 영농 으로 원가 절감 및 품목에 의한 재고 및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 경기도 포천군 영농회원 단합대회

시켰으며 악도 생전자 회원들 확대시켜 계획생 산으로 전량 수매한후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 유통체제를 완성시키자 고지시하였다.
특히 충무(이문설理事)는 하부에선 재배회 원확보에 노력하였고 상부에선 농호산부·보사 부등 유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전국 「생협회·단합大會」을 추진하여 생산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자 고 제안하였다.